

본문: 요한복음 3 장 13-21 절

제목: 보내시고 내어 주신 사랑

1.

1992 년 제 14 대 대통령 선거에 정주영 현대 회장이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었죠. 당시 정주영 회장은 87 세였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요실금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회장은 그의 측근들에게 40 세를 젊게 한다면 40 조원을 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87 세가 40 조원을 써서 47 세가 된다면, 저는 현재 47 세이니 40 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20 대 후반이니 70 조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그러니 영생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참 쉬워보이기까지 합니다. 믿으면 되고 의지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을 수 없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징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법도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매우 쉬워보이는데 믿음의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무엇을 사라고 하거나, 무엇을 먹으라고 하거나, 무엇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 바라보고 믿는다고 뭐가 바뀌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 요한복음 3 장 16 절 말씀은 교회 꾀나 다녀본 사람들은 모두 줄줄 외우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섯 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구절을 노래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들은 이 짧은 말씀 안에 구원의 심오한 비밀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처럼'이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민수기 21 장 4-9 절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

민수기 21 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탈출시켜 고생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마실 물도 부족한 광야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하고 원천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때문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광야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들의 태도는 매우 무례하고 불손한 것이지요. 믿음을 저버린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행해진 불신이 다시 행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쓰러지며 죽어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때려 잡아 그 형상을 만든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뱀에게 이미 물려 독이 심장을 향해 퍼져 가는 사람일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겠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불뱀을 죽여 놋뱀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죽여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생화학적인 반응이나 의학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겠다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불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죽음의 방식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다시 말해 뱀을 든 것 같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죽여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뱀이 장대에 들려 올려지듯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것을 쳐다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함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내려온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위로부터 온 자를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들려 올려져야만 가능하다고 14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들려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인 거죠. 십자가는 아들 예수가 하늘 위의 하나님께로 들려지게 되는 통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들려 올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는 고난이나 수난이라기 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곳이라 이해합니다.

십자가 위에 들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래 세상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눈을 들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준수, 플라톤 철학을 통한 지식, 도교의 자연에의 순응, 현대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들려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가 가져온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한 십자가를 바라봄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3.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 보내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자라는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보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사랑의 형식(formula)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냄의 형식(the sending formula)이고 둘째는 내어 줌의 형식(the giving up formula)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주심과 내어주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mission) 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위로부터 아래로 보낸 것이 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자신의 agent 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셔서 위 세상과 아래 세상을 다리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위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 내어 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줍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어줌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를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17 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아들을 보내신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래 세상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래 세상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위로부터 보내진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건짐을 받게 됩니다.

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 두 형식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보냄 받음과 내어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보냄을 받는 것과 내어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죽은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방식이야 말로 보냄 받음과 내어줌, 다른 말로 자기수여(self-giving)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입니다. 라틴말에서는 보내지는 것을 *missio*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mission* 이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보냄 받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missional church* 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존재목적을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missional being* 이라는 말입니다. 미셔널 빙들은 보내신 자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기 수여, 즉 자기를 타자를 위해

내어주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를 기뻐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존재하십니다. 이 존재방식을 본받아 교회인 우리도 자기 수여의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수여 또는 자기 내어줌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죄 된 본질은 우리의 사랑을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라는 징그러운 자아에서 해방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내어주는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마 16:24)”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곧 기준이다.”라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 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신의 자리, 곧 기준의 자리에 서려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간입니다. 그는 아테나이로 통하는 관문에서 쇠 침대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침대에 눕혀서 죽였다고 합니다. 키가 큰 나그네는 잘라 죽이고, 키가 작은 나그네는 늘여서 죽이곤 했던 겁니다. 그는 차이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위험한 것이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프로크루테스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이단, 사탄, 적그리스도라 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일이 자행해 왔습니다. 십자가는 권력의 부정 아니겠습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반역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권력에 의해 십자가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지위와 부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야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딱 막힌 집단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개방성은 닫아 버리고 ‘우리의식’, 즉 패거리 문화로 뚝뚝 뭉친 닫힌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교회밖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차이를 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다양성과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태도만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 둔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기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장소이며 타자를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중력처럼 사로잡고 있는 자기애의 인력을 자기 부정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자기애의 폭력과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날선 검으로 자기애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보냄 받은 자들의 자기 내어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알려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Gravity 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Grace 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Gravity 는 저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지만, Grace 는 저 위로 우리를 끌어 올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진 자들은 자기 내어줌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 더하기 1 은 2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일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미셔널 빙의 존재방식은 무엇이라구요? 자기 내어줌, 자기 수여입니다. 타자를 재단하여 잘라내는 대신 그들을 얻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야 말로 신과 인간의 차이를 극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 즉 자기 내어줌의 삶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말씀을 통해 보냄 받은 자의 존재방식은 자기를 내어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내어줌이 힘든 이유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